

RESEARCH ARTICLE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dropout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through academic burnout*

Kang, Yo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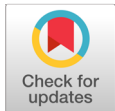
Professor, Joongb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소진을 통한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강요한

중부대학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ang, Yohan (johnk@joongbu.ac.kr)



OPEN ACCESS

Citation: Kang, Yohan.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dropout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through academic burnout.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6, 139-150.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6.36.10>

Received: March 09, 2026

Revised: April 23, 2026

Accepted: April 29, 2026

Copyright: © 2026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dropout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burnout and investigat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in this relationship. A survey was 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 to measur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dropout intention, and gri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3 and the PROCESS macro.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PROCESS Macro Models 4 and 7 were appli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burnout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grit.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burnout and dropout intention, whereas gr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se variables. Academic burnou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ropout intention. In addition, gri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and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dropout intention through academic burnout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grit, indicating a significant moderated mediation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cademic burnout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ropout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urthermore, grit, typically considered a positive personal trait, may intensify psychological burden under certain condition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and offers basic data for developing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o prevent academic burnout and support academic persistence.

Keyword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dropout intention, grit, moderated mediation effect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Joongbu University Research & Development Fund, in 2025.
이 논문은 2025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학업 수행, 진로 준비,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발달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시기로 개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요구를 부과한다. 특히 최근 대학 환경은 성취 중심 문화와 경쟁적 학업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대학생들은 학업 활동에 대한 정서적 탈진과 냉소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업소진은 학업 활동과 관련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및 인지적 고갈 상태를 의미하며(Schaufeli et al., 2002), 학업 참여 감소와 학업 지속 의도 약화와 같은 부정적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Schaufeli 등(2002)은 학업소진을 정서적 탈진(emotional exhaustion), 냉소(cynicism), 그리고 학업 효능감 저하(reduced academic efficacy)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정서적 탈진은 학업 요구로 인해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며, 냉소는 학업 활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부정적 태도를 반영한다. 또한 학업 효능감 저하는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 상태는 학업에 대한 흥미 감소와 학업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업 지속 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Salmela-Aro 등(2009)은 학업소진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이 낮고 학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학업소진은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 관련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이 학업 스트레스, 우울, 학업 실패 경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과 관련되며 학업 성취와 같은 긍정적 학업 결과와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유금란, 2025).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학업소진은 학업 수행과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민주 등, 2020). 이와 함께 국내 학업소진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문헌 고찰에서도 학업소진이 대학생의 학업 참여 감소와 학업 부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적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박민지, 김수임,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업소진이 단순한 피로 상태를 넘어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학업 지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임을 시사한다.

학업소진의 개인적 요인 중 하나로 완벽주의(perfectionism)가 지목되어 왔다. 완벽주의는 개인이 매우 높은 수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며(Frost et al., 1990), 그 유형에 따라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Hewitt와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이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패를 개인적 결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은 지속적인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Hewitt와 Flett(1991)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정서적 탈진과 심리적 소진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Hill & Curran, 2016).

국내 연구에서도 완벽주의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현정과 손정락(2006)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일상적 스트레스와 반추,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보람과 양난미(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며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통해 학업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단순한 성취 추구 성향이라기보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부정적 인지 과정과 관련된 심리적 취약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 환경은 단순히 평가와 비교가 빈번한 맥락이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학업 수행과 더불어 진로 준비, 대인관계 형성, 취업 경쟁, 자기주도적 의사결정과 성과관리 등 다양한 과업을 동시에 요구하는 맥락이라는 점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욱 복합적인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높은 수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 활동을 성장의 기회라기보다 실패를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정서적 탈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선행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학업소진은 중도탈락의도(dropout intention)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도탈락의도는 학생이 대학을 지속적으로 다니기보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학을 이탈할 가능성을 인지적으로 고려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Tinto(1993)의 대학생 중도탈락 모형에 따르면 학생이 학업 환경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과 학업 참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학에 대한 몰입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중도탈락가

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학업소진은 중도탈락의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almela-Aro 등(2009)은 학업소진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참여가 감소하고 학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며 이는 학업 지속 의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학업소진은 대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민주 등(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증가하며, 이러한 학업소진이 학업 수행과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업소진이 단순한 일시적 피로 상태를 넘어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학업 지속 여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개인의 장기적 목표 추구 성향을 의미하는 그릿(grit)이 학업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인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Duckworth 등(2007)은 그릿을 장기적 목표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지속성(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으로 정의하였으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목표 지향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성향으로 보았다. 실제로 Credé 등(2017)의 메타분석 연구는 그릿이 학업 성취 및 학업 지속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수란과 손영우(2013)는 투지(grit)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임효진(2017)은 그릿이 학습 관련 변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은희 등(202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자기결정성과 같은 긍정적 학습 동기와 유의한 관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그릿이 일반적으로 학업 수행과 적응을 촉진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그릿은 학업소진과 같은 부정적 적응 지표와도 관련될 수 있다. 그릿이 높은 개인은 장기적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학업소진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특성이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능은 개인이 처한 맥락과 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구-자원 모형(Job Demands-Resources Model)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자원은 높은 요구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노력 투입을 지속하게 하여 자원 고갈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즉 그릿은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높은 수행 요구와 강한 평가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정서적 회복보다 지속적 수행을 우선하게 만들어 학업소진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결합될 때 더욱 중요해진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기 가치가 손상된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Hewitt & Flett, 1991), 학업 상황을 성장의 기회라기보다 실패를 피해야 하는 평가 장면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그릿이 높은 경우, 학생은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수행 요구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목표를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릿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약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만 작용하기보다, 특정 조건에서는 그 관계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그릿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도탈락의도에 이르는 간접경로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릿이 어떠한 조건적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릿이 항상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보이는지, 혹은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매개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그릿이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업소진과 중도탈락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개입 및 상담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을 매개로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그릿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가설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중도탈락의도는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며, 그릿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중도탈락의도와 부정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학업소진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중도탈락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그릿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그릿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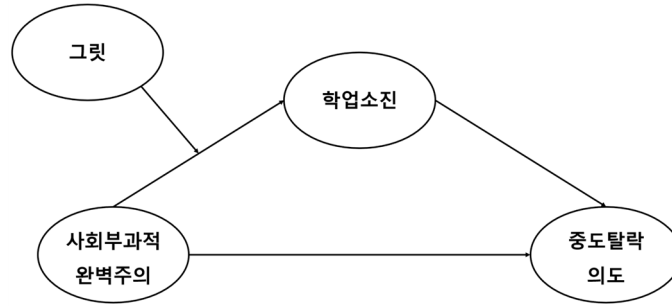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52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지역과 전공 배경을 가진 대학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패널 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을 통해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총 252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 125명(49.6%), 여성 127명(50.4%)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은 만 18~19세가 34명(13.5%), 만 20~29세가 218명(86.5%)으로 대부분이 만 20~29세 연령대에 해당하였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43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5명(21.8%),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7명(10.7%), 전라권(광주·전남·전북) 20명(7.9%), 강원권 6명(2.4%), 제주권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는 1학년 41명(16.3%), 2학년 82명(32.5%), 3학년 87명(34.5%), 4학년 42명(16.7%)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87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공계열 64명(25.4%), 의학·보건계열 25명(9.9%), 경상계열 24명(9.5%), 자연과학계열 20명(7.9%), 교육계열 17명(6.7%), 예체능계열 12명(4.8%), 기타 2명(0.8%), 법학계열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25	49.6
	여성	127	50.4
연령	만18~19세	34	13.5
	만20~29세	218	86.5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43	56.7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7	10.7
	전라권(광주/전남/전북)	20	7.9
	경상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5	21.8
	강원권(강원)	6	2.4
	제주권(제주)	1	0.4
	학년	1학년	41
2학년		82	32.5
3학년		87	34.5
4학년		42	16.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87	34.5
	자연과학계열	20	7.9
	이공계열	64	25.4
	예체능계열	12	4.8
	경상계열	24	9.5
	의학/보건계열	25	9.9
	교육계열	17	6.7
	법학계열	1	0.4
	기타	2	0.8
전체		252	100.0

2. 연구도구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The Hewitt and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 Scale: H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2) 학업소진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척도를 Shin 등(2011)이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학업소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탈진, 냉소, 학업무능감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소진 척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탈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8, 냉소 내적합치도(Cronbach's α) .69, 학업무능감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3) 중도탈락의도

중도탈락의도는 구자경 등(2003)이 개발한 학생 중도탈락의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퇴마음, 자퇴구체성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탈락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도탈락의도 척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자퇴마음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6, 자퇴구체성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8로 나타났다.

4) 그릿

그릿은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Grit-O(Original Grit Scale) 척도를 이수란(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심의 지속성, 노력의 꾸준함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그릿 척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지속적인 관심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4, 끈기있는 노력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소진의 매개효과와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과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소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10,000회 재추출을 통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적용하였다. 모든 연속변인은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Index of Moderated Mediation과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중도탈락의도, 학업소진, 그릿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규성 가정을 위해 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은 2, 첨도 절댓값은 7을 넘지 않아야 한다 (Finch & West, 1997).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 기준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중도탈락의도, 학업소진, 그릿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중도탈락의도($r = .48, p < .01$)와 학업소진($r = .43,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릿($r = -.31, p < .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중도탈락의도는 학업소진($r = .63, p < .01$)과 정적 상관을, 그릿($r = -.37,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학업소진 역시 그릿($r = -.53,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 간 관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중도탈락의도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그릿의 하위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252)

	1	2	2-1	2-2	3	3-1	3-2	3-3	4	4-1	4-2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2. 중도탈락 의도	.48**	-									
2-1. 자퇴마음	.45**	.97**	-								
2-2. 자퇴 구체성	.48**	.93**	.84**	-							
3. 학업소진	.43**	.63**	.63**	.54**	-						
3-1. 탈진	.45**	.58**	.57**	.52**	.83**	-					
3-2. 냉소	.31**	.57**	.55**	.53**	.75**	.58**	-				
3-3. 무능감	.23**	.32**	.34**	.23**	.71**	.31**	.28**	-			
4. 그릿	-.31**	-.37**	-.40**	-.29**	-.53**	-.34**	-.32**	-.55**	-		
4-1. 지속적인 관심	-.30**	-.30**	-.33**	-.22**	-.48**	-.32**	-.30**	-.47**	.93**	-	
4-2. 끈기있는 노력	-.27**	-.39**	-.42**	-.31**	-.50**	-.30**	-.29**	-.55**	.92**	.73**	-
M	57.5	16.6	10.0	8.6	43.7	14.8	11.7	17.1	40.1	19.7	20.3
SD	11.3	7.1	4.3	4.0	10.0	4.9	3.4	4.6	7.7	4.2	4.0
왜도	-.06	.26	.19	.51	-.12	-.09	.02	.17	-.14	-.12	-.29
첨도	.45	-.93	-.95	-.73	.09	-.67	-.48	-.12	.78	.18	.67

**p < .01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중도탈락의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소진의 매개효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ndrew F.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10,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5, SE = .05, t = 7.32, p < .001$).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53.64, p < .001$), 설명력은 약 15%($R^2 = .1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소진을 포함한 모형에서 학업소진은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39, SE = .04, t = 11.02, p < .0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또한 중도탈락의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B = .16, SE = .03, t = 5.13, p < .001$). 이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13.61, p < .001$), 설명력은 약 44%($R^2 = .44$)로 나타났다.

이어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표 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4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10, .19]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업소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학업소진의 매개효과 분석

준거변인	변수	B	S.E	t	LLCI	ULCI	F	R ²
학업 소진	상수	23.87	2.81	8.48***	18.34	29.41	53.64***	.1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35	.05	7.32***	.25	.44		
중도탈락의도	상수	-9.20	1.88	-4.89***	-12.91	-5.50	113.61***	.4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6	.03	5.13***	.10	.22		
	학업소진	.39	.04	11.02***	.32	.45		

*** $p < .001$

표 4. 학업소진의 Bootstrapping 검증결과

종속변인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중도탈락의도	.14	.02	.10	.19

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ndrew F.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25, SE = .05, t = 5.33, p < .001$), 그릿은 학업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56, SE = .07, t = -8.21, p < .001$).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그릿의 상호작용항은 학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1, SE = .01, t = 2.57, p < .05$).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51.21, p < .001$), 설명력은 약 38%($R^2 = .38$)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릿 수준을 평균 및 평균 ± 1 표준편차로 구분하여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릿이 낮은 수준일 때($B = .14, p < .05$), 평균 수준일 때($B = .25, p < .001$), 높은 수준일 때($B = .35, p < .001$) 모두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그릿의 조절효과 분석

단계	변수	종속변인: 학업소진					
		B	SE	β	t	R ²	ΔR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5	.05	.28	5.33***	.37***	
	그릿	-.56	.07	-.45	-8.21***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5	.05	.28	5.33***	.38***	.02*
	그릿	-.56	.07	-.45	-8.2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그릿	.01	.01	.13	2.57*		

*p < .05, ***p < .001

표 6. 그릿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릿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1 SD	.14	.07	2.19*	.01	.27
M	.25	.05	5.33***	.16	.34
+1 SD	.35	.06	6.12***	.24	.47

*p < .05, ***p < .001

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중도탈락의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후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그릿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릿이 낮은 수준(-1SD)에서는 간접효과가 .0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003, .123]으로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릿이 평균 수준(M)일 때 간접효과는 .09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051, .13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릿이 높은 수준(+1SD)에서는 간접효과가 .13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084, .18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확인한 결과, 그 값은 .00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0002, .009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그릿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1 SD	.05	.03	-.003	.123
M	.09	.02	.051	.139
+1 SD	.13	.03	.084	.183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005	.002	.0002	.009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매개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중도탈락의도 및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적용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중도탈락의도는 서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그것은 이들 변인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업 과정에서 더 높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학업 소진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소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중도탈락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 스트레스 및 정서적 소진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ill & Curran, 2016). 국내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일상적 스트레스, 반추,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학업적 지연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학업 행동과도 관련된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김현정, 손정락, 2006; 박보람, 양난미, 2012). 또한 학업소진이 학업 참여 감소 및 학업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국외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Salmela-Aro et al., 2009), 국내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증가하고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이민주 등, 2020).

둘째, 학업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학업 중단 의도를 형성하기보다는 학업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탈진과 부정적 학업 경험을 통해 중도탈락의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수행 기준과 타인의 기대에 대한 압박 속에서 학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심리적 자원을 소진하게 되고, 이러한 소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학업 지속 의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소진이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학업 지속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Schaufeli et al., 2002).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소진이 학업 수행과 학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이민주 등, 2020),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가 학습 관련 심리 변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도 제시되어 왔다(이숙정,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학업소진의 매개효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학업소진이 핵심적인 심리적 경로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그것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것은 두 변인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것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소 차별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것이 높은 개인일수록 학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학업 성취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왔다(Duckworth et al., 2007; Credé et al., 2017). 국내에서도 이수란과 손영우(2013)는 투지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으며, 임효진(2017)은 그것의 하위요인과 타당도를 검토하면서 그것이 학습 관련 변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은희 등(2020)은 대학생의 그것이 자기결정성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절효과는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적응적인 특성으로 기능하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 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기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이 높은 학생들은 목표를 조정하거나 수행 요구를 완화하기보다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학업 수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자원의 회복을 제한하여 탈진을 누적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그것이 항상 적응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수행 요구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그것을 학업 성취, 학업 지속, 자기결정성과 같은 긍정적 적응 지표와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해석해 왔다(Duckworth et al., 2007; Credé et al., 2017; 이수란, 손영우, 2013; 오은희 등, 2020). 반면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 그것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강화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것의 기능이 항상 일관되게 적응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같은 높은 수행 압박 및 외적 평가 중심 맥락과 결합될 때 부정적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행 요구 수준, 자기 가치의 조건성, 회복 경험의 부족과 같은 맥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오히려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그것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평균 수준 이상일 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낮은 수준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상황에서 그것의 높은 지속성이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강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천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학업 지속과 성취를 촉진하는 긍정적 특성으로 이해되

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상황에서 그것이 학업소진을 거쳐 중도탈락의도에 이르는 경로를 강화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특히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고, 실패를 자기 가치의 손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지속성과 인내를 강조하기보다, 목표를 개인의 가치와 의미에 기초하여 재구성하고 과도한 수행 요구를 조정하며 적절한 회복과 자기조절 전략을 함께 훈련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에서 그것이 학업성취와 자기결정성 등 긍정적 학습 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는 그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고 학업소진 또는 중도탈락 위험이 높은 학생을 선별하여 자기결정적 목표 설정과 회복 경험 강화를 함께 다루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이수란, 손영우, 2013; 오은희 등, 2020).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이해할 때 개인의 성격 특성과 심리적 자원이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높은 수행 요구 상황에서 지속적인 노력 투입이 유지될 경우 심리적 자원의 회복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학업소진을 통해 학업 지속 의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목표 지속성의 강조보다 수행 요구를 조절하고 회복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업 부적응을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그것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목표 지속 성향이 특정 상황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요 변인을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 자료나 학업 성취 지표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 경험과 심리적 변인의 변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진로 불안 등 다양한 개인 및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중도탈락 위험을 보다 종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매개로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그것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중도탈락의도 및 그것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그것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 및 중도탈락의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것은 이들 변인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소진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그것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그것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그것 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통해 중도탈락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소진이 중요한 심리적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목표 지속 성향으로 알려진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완벽주의 성향과 심리적 자원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학생의 학업소진 예방과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중도탈락의도, 그릿, 조절된 매개효과

참고문헌

- 구자경, 홍지영, 장유진(2003). 청소년의 자퇴 욕구 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상담과지도*, 38, 149-180.
- 김진정, 김봉환(2022). 중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의 관계: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및 부모의 긍정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9(4), 75-100.
- 김우철, 김지영, 박민주(2018). Grit과 학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외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0(2), 77-100.
- 김유선, 유금란(2025). 국내 대학생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1), 1-21.
- 김현정, 손정락(2006).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반추 및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4(1), 23-31.
- 박민지, 김수임(2021). 대학생 학업소진 관련 국내 연구에 대한 통합적 문헌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725-742.
- 박보람, 양난미(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41-561.
- 오은희, 최인선, 정철상(2020). 대학생의 그릿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 258-267.
- 이민주, 김가현, 이준우, Vo Nhat Huy, 이상민(2020).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실패내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2), 175-185.
- 이수란(2015). 투지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자존감의 수반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란, 손영우(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숙정(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임효진(2017). 그릿(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rew P. Hill, & Thomas Curran. (2016).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burnout: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0(3), 269-288.
- Angela L. Duckworth, Christopher Peterson, Michael D. Matthews, & Dennis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Arnold B. Bakker, & Evangelia Demerouti. (2007).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State of the ar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2(3), 309-328.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atariina Salmela-Aro, Noona Kiuru, Eija Leskinen, & Jari-Erik Nurmi. (2009). School burnout inventory (SBI): Reliability and valid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5(1), 48-57.
- Marcus Credé, Michael C. Tynan, & Peter D. Harms.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Paul L. Hewitt, & Gordon L. Flett.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Randy O. Frost, Patricia Marten, Cathy Lahart, & Robin Rosenblate.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Shin, H. J., Puig, A., Lee, J., Lee, J. H., & Lee, S. M. (2011).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4), 633-639.

Vincent Tinto.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lmar B. Schaufeli, Isabelle M. Martínez, Alexandra M. Pinto, Marisa Salanova, & Arnold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